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 세 정**

KAIST

김 명 섭***

전북대학교

류 지 영****

KAIST

이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는지와, 이 관계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86명의 학생(남학생 68명, 여학생 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수학·과학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비교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소진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아개념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학업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 소진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비교로 인한 학업 소진의 위험성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전형 과학고 학생의 학업소진을 줄이고,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자기 가치에 대한 고려 및 교육적 개입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 사회비교경향성,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I. 서 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나 부담을 경험하기 쉽다.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부모나 교사, 또래 친구들로부터 높은 기대로 인

*이 원고는 2023년 창의력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제1저자: 홍세정,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교수, hongsj@kaist.ac.kr

***공동저자: 김명섭, 전북대학교, 조교수, edukms@jbnu.ac.kr

****교신저자: 류지영,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센터장, jryu01@kaist.ac.kr

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비슷한 학업 수준을 보이는 또래와의 경쟁으로 인해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등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Marsh, 1987).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법정차상위계층 등)과 사회다양성전형(도시·벽지 중학교 졸업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전형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 제약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류지영, 김미진, 2017; 류지영, 김미진, 2018).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은 사회·심리적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이재덕, 장희선, 길혜지, 2017), 학업적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적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피로감, 낮은 성취, 정서적 고갈 등이 나타나며, 학업에 대한 유능감이 낮아져 무능감을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라고 한다(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손윤실, 김정섭, 2016; 이은주, 2023; Schaufeli, Martez, Marques, Salanova, & Bakker, 2002). 학습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경험들이 쌓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Bask & Salmela-Aro, 2013), 이러한 학업소진은 낮은 학습몰입, 학업부진, 스트레스, 우울(이혜은, 정태욱, 2021; 이은주, 2023; Seibert, Bauer, May, & Fincham, 2017) 등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심리적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영재들의 경우 일찍이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과도한 학업적 요구나 기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학업소진을 경험할 수도 있다(김홍희, 한기순, 2015; 안종혁, 유미현, 2014). 따라서 학습자의 학업상황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사회비교경향성(Festinger, 1954)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은 Festinger(1954)가 제안한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비교경향성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보여준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거나(Bogart & Helgeson, 2000),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회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의 대처방법 중 하나로 적용하기도 한다(Taylor, Buunk, & Aspinwall, 1990).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은 개인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회피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조규판과 장은영(2009)의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수준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노력귀인을 보여 주었고, 사회비교경향성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높은 집단에 비해 실패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타인에게 귀인하는 경향

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습양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은 낮은 집단의 학생에 비해 협동형, 독립형, 참여형, 경쟁형 학습양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긍정적 동기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구판, 장은영,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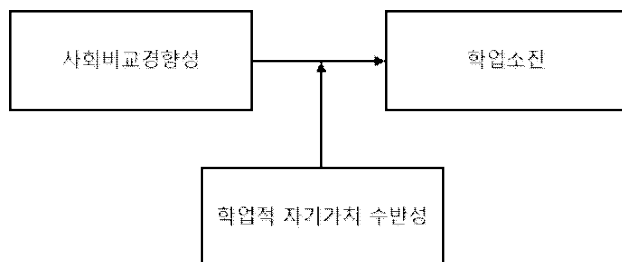
한편 부정적 측면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은 사회불안(이유진, 박주희, 2019), 주관적 안녕감(박소영, 이은주, 2019; 백고은, 2020; 진성조, 이진실, 2023), 행복(구재선, 서은국, 2015)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갖게 한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이연실, 2019; 송진아, 2021; 이민영, 김보영, 2022), 이민영과 김보영(2022)은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탈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송진아(2021)는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능력비교가 높을수록 학업적 고갈과 자신감은 낮아지고, 의견비교를 많이 할수록 학업에 대한 회의감은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별로 차별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연실(2019)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인 능력차원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냉소성과 정서적 고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생들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학자들은 사회비교경향성은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징이나 행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Buunk, Dijkstra, & Bosma, 2020).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인 이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업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과학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비교경향성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측면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비교경향성이 어떠한 기제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사회비교경향성이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에 모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아존중감 취약성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된 개념으로(Crocker & Wolfe, 2001; Kernis, 2003), 특정 영역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Crocker & Wolfe, 2001). 이러한 자기가치 수반성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성공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Crocker, 2002). 하지만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은 과제수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기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실패가 염려되는 경우, 도전을 피하는 등 회피를 통해 자기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기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방어적 또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진우, 이선영, 2021; Kernis, 2003; 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이렇듯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으면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학업의 수행목표를 자기가치감에 두기 때문에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기가치감에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실패나 실수를 경험하거나, 부정적 피드백 등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Crocker & Knight, 2005). 이처럼 과제의 성과를 자기 가치의 원천으로 삼을 경우,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Crocker & Knight, 2005), 학업에 자기가치를 수반한 학습자들은 평가적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고, 노력을 철회하는 등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한 연구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 때 자아존중감이 크게 변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rocker, Karpinski, Quinn, & Chase, 2003). 이러한 특성들은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 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업수준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학생들과의 비교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학업적 결과나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치감이 크게 변화하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이 사회비교경향성 수준도 높아 타인의 평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가속화되어 학업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있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소진을 예방하고, 학업 지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고등학생 1,2학년 중에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K대학의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86명으로 남학생은 68명(79.07%), 여학생은 18명(20.93%)이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62명(72.09%), 2학년은 24명(27.91%)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K대학교 캠퍼스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업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캠프를 실시하고, 입학 후에는 여름방학 중에 K대학교 캠퍼스에서 이공계 진로멘토링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이공계 진로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측정 도구

가. 사회비교경향성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최윤희(2003)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비교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본 검사는 5점 Likert형 척도를 가진 11개 문항(문항 예: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은 Crocker, Karpinski, Quinn, & Chase(2003)이 개발하고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2013)이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척도는 외모, 타인의 인정, 경쟁, 학업적 유능감, 가족의 지지, 도덕성, 신의 사랑의 7개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경 외(2013)가 타당화한 척도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는 7개 문항(문항 예: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을 활용하였으며, 원 척도에 따라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학업 소진

학업소진은 Schaufeli와 동료들(2002)이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한국의 학생들에게 맞게 번안·타당화한 이영복 외(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탈진, 무능력, 반감, 냉담, 불안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로 인해 소진되었다고 느낀다”) 5점 Likert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을 합산한 점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업 소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라. 수학·과학 자아개념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Arens 외(2017)는 PALMA(Project for the Analysis of Learning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에서 활용한 자아개념 6개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에서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1인에게 영어로 재번역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3인에게 원문항과 번역 문항, 역번역 문항 의미 간 일치성과 표현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최종 문항의 경우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과목명만 변경하여 수학과 과학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문항: “나는 수학/과학에 재능있는 학생이다”, “수학/과학에 관한 것은 이해하기 쉽다”, “나는 수학/과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나는 수학/과학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다”, “나는 수학/과학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쉽다”, “수학/과학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나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평행성 분석(parallel analysis) 결과 수학·과학 각각 1개 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각 70.4%(수학), 70.7%(과학)을 설명하였다. 요인 부하량 또한 모든 문항이 1개 요인에 .70 이상으로 높게 부하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학 과학 각각 .93, .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두 변수를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두 변수의 곱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경우 조절변수의 수준을 각각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 평균인 집단,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Jamovi 2.3.28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댓값이 2와 7이하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자아개념과 과학 자아개념은 각각 학업 소진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나타났다(모두 $p < .001$),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고($p < .05$),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p < .001$) 학업 소진 또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수학·과학 자아개념과 사회비교 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경우, 수학 자아개념이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p < .05$) 이외에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 > .05$). 유의하게 나타난 상관의 크기를 살펴보면, 수학 자아개념과 과학 자아개념 간 상관이 .65로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변수 간 상관이 .20~.40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1단계 모형으로 통제변수인 수학·과학 자아개념만 투입한 모형(모형 1)을 분석한 후, 이어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투입한 모형(모형 2)을 분석하였고 이후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였다(모형 3).

통제변수인 수학·과학 자아개념만 투입한 모형의 설명량은 13.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84)=12.71, p < .001$.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량 변화(ΔR^2) 또한 1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82)=5.53,$

<표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1 수학 자아개념	-				
2 과학 자아개념	.65***	-			
3 사회비교 경향성	-.23*	-.20	-		
4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12	-.11	.20	-	
5 학업 소진	-.36***	-.35***	.22*	.35***	-
평균	2.90	3.26	3.29	4.70	2.56
표준편차	0.90	0.88	0.61	1.20	0.79
최대값	1.00	1.00	1.73	2.00	1.00
최소값	5.00	5.00	4.64	7.00	5.00
왜도	-0.04	-0.26	-0.08	-0.12	-0.25
첨도	-0.45	0.19	-0.57	-0.67	0.11

* $p<.05$, ** $p<.01$, *** $p<.001$

$p=.006$. 끝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의 설명량은 29.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5, 80)=6.68$, $p<.001$, 추가 설명량 또한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80)=3.40$, $p=.038$. 이에 모형 3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모형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1.08~1.85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했을 때, 수학·과학 자아개념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33$). 이외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532$),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 즉,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학업 소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모형	변수	B	S.E.	t	R^2 (ΔR^2)
모형1	수학 자아개념	-0.12	0.11	-1.03	.131***
	과학 자아개념	-0.19	0.11	-1.67	
모형2	사회비교 경향성	0.08	0.13	0.63	.235*** (.103**)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0.21	0.06	3.26**	
모형3	사회비교 경향성 ×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0.22	0.10	2.17***	.295***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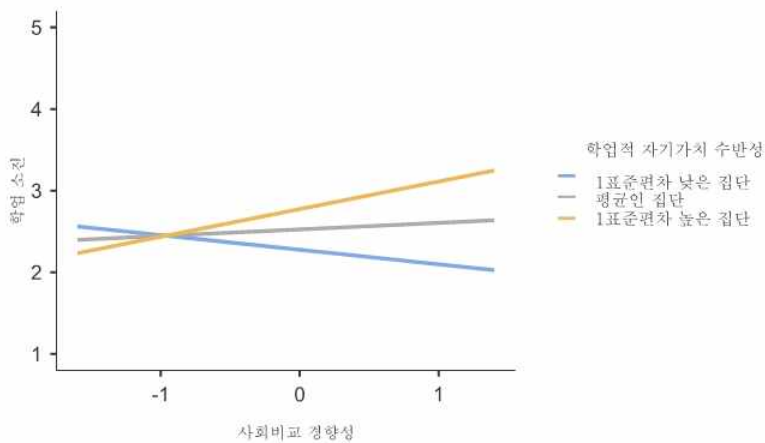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을 각각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1SD), 평균인 집단,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1SD)으로 나누어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거나 평균인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 소진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모두 $p>.05$),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 또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43$). <표 3>과 [그림 2]에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에 따라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자가가치 수반성 수준	<i>B</i>	<i>S.E.</i>	<i>t</i>
1표준편차 낮은 집단 (-1SD)	-0.18	0.18	-0.97
평균인 집단 (평균)	0.08	0.13	0.63
1표준편차 높은 집단 (+1SD)	0.34	0.17	2.06*

* $p<.05$, ** $p<.01$, *** $p<.001$



[그림 2]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통제했을 때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만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들 간의 정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연실, 2019; 이민영, 김보영, 2022)와 일치하였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는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 소진과는 무관했다. 이는 학업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학업 지속에 있어 부정적 기제로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초점을 둔 결과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안녕감이 낮은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김나래, 이기학, 2012; Gibbons & Buunk, 1999),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비교를 자기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특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손선경, 2015; Wills, 1981).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 자체보다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성 등에 따라 사회비교경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질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비교경향성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사회비교경향성의 영향성을 조절하는 변수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은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정도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있어 높은 사회비교경향성 자체보다는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높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에 있어 부정적 행동을 하기 쉬우며(김진우, 2019; Crocker, 2002; Crocker & park, 2004),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의 지속에 있어 자기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성공적인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좌절이나 실패에서 배우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학업성취에 수반성을 둔 학생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유지, 향상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목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업소진에 취약한 원인이 될 수 있다(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또한 자기가치감을 바탕으로 한 동기는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낮은 자율성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 낮은 내재동기 등과 관련이 있다(Crocker et al., 2006; Deci & Ryan, 1985).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이 빈

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 학업상황에서 이러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다면 이는 학습자의 정서, 학습에 대한 태도, 동기, 목표지향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와 같이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경쟁적인 학업적 환경에서 사회비교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하여 개인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비교경향성이 높고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안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학업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에 학생 개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업성취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학습 분위기가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업에 자기가치가 수반된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따라 자존감의 변화가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죄책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가치 확인(self-affirmation)을 개입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자기 가치 확인은 자신의 이미지에 위협이 있을 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정서와 방어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취약한 자아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제안되어 왔다(Cohen & Sherman, 2014; 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Sherman & Cohen, 2006; Steele, 1988). 따라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성공 등 외부평가에 기반한 가치가 아닌 영역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과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업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영재학생이 재능계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낙담과 자기회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장기적인 재능계발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botnik, Olszewski-Kubilius, & Worrell, 2011).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K대학의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

여대상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는 입시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학업과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생들도 연구대상으로 추가하여 사회비교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시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이 과중될 수 있으며, 입학한 시점과 과학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사회비교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지속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김나래, 이기학 (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진우 (2019).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목표 및 연습 여부에 따라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진우, 이선영 (2021). 청소년들의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손상화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달목표 처치와 실패 전 연습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5(1), 169-197.
- 김홍희, 한기순 (2015). 영재 청소년의 학업소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영재교육연구**, 25(3), 421-437.
- 류지영, 김미진 (2017). 소외계층 잠재적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영재교육연구**, 27(4), 527-546.
- 류지영, 김미진 (2018).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인식. **교육문화연구**, 24(1), 233-254.
- 박소영, 이은주 (2019).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학급 경쟁성, 부모와 자신의 사회비교 경향성,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33(2), 235-256.
- 백고은 (2020).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9(1), 229-247.
- 손선경 (2015). 부모의 형제비교행위가 정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 완벽주의와 사회비교

- 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65-683.
- 손윤실, 김정섭 (2016). 고등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0(4), 671-690.
- 송진아 (2021).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안종혁, 유미현 (2014).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 비교 및 관계 분석. **영재교육연구**, 24(2), 169-189.
- 이민영, 김보영 (2022). 사회비교경향성 및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8(2), 143-164.
- 이연실 (2019). **부모의 학업비교와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5(3), 59-78.
- 이유진, 박주희 (2019). 중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0(1), 39-50.
- 이은주 (2023).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좌절과 학업소진, 수업이탈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37(2), 121-142.
- 이재덕, 장희선, 길혜지 (2017). 사회통합전형 맞춤형 프로그램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사회통합의 식 효과분석: 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1(3), 437-468.
- 이혜은, 정태욱 (2021).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업소진과 학습몰입의 관계 정서적지지와 메타인지전략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2(3), 641-663.
-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 (2013). 한국 고등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1), 91-119.
- 조규판, 장은영 (2009). 고등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에 따른 학습양식 및 성패귀인양식. **한국교육학연구**, 15(2), 57-78.
- 진성조, 이진실 (2023).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2), 625-634.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 Arens, A. K., Marsh, H. W., Pekrun, R., Lichtenfeld, S., Murayama, K., & Vom Hofe, R. (2017). Math self-concept, grades, and achievement test scores: Long-term reciprocal effects across five waves and three achievement track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9(5), 621-634.
- Bask, M., & Salmela-Aro, K. (2013). Burned out to drop ou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 burnout and school dropou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 511-528.
- Bogart, L. M., & Helgeson, V. S. (2000). Social comparisons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3), 547-575.
- Buunk, A. P., Dijkstra, P. D., & Bosma, H. A. (2020). Changes i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Clinical &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11.
- Cohen, G. L., & Sherman, D. K. (2014). The psychology of change: Self-affirmation and social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333-371.
- Crocker, J. (2002). Contingencies of self-worth: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Self and Identity*, 1(2), 143-149.
- Crocker, J., Brook, A. T., Niiya, Y., & Villacorta, M. (2006). The pursuit of self-esteem: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749-1772.
- Crocker, J., Karpinski, A., Quinn, D. M., & Chase, S. K. (2003). When grades determine self-worth: consequences of contingent self-worth for male and female engineering and psychology maj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507-516.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0-20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Crocker, J., Niiya, Y., & Mischkowski, D. (2008). Why does writing about important values reduce defensiveness? Self-affirmation and the role of positive other-directed feelings. *Psychological Science*, 19(7), 740-747.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Marsh, H. W. (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3), 280-295.
- Schaufeli, W. B., Martinez, I. M., Marques Pinto,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Seibert, G. S., Bauer, K. N., May, R. W., & Fincham, F. D. (2017). Emotion regulation and academic underperformance: The role of school burnou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0, 1-9.
- Sherman, D. K., & Cohen, G. L. (2006). The psychology of self-defense: Self-affirmation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83-242.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261-30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ubotnik, R. F., Olszewski-Kubilius, P., & Worrell, F. C. (2011). Rethinking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A proposed direction forward based on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2(1), 3-54.
- Taylor, S. E., Buunk, B. P., & Aspinwall, L. G. (1990). Social comparison, stress, and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1), 74-89.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271.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on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Who Entered by Affirmative 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Sejeong Hong

KAIST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Myung-Seop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iyoung Ryu

KAIST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and to identify possibl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Eighty-six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who entered by affirmative ac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answered self-report measures about math, science academic self-concep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and academic burnout. Results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in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was significant when academic self-concept was controlled. For students who reported higher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positively predicted academic burnout. However, for students who reported average level or low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was non-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s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Based o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nhance self-worth should focus on preventing academic burnout for gifted students.

Key Words: Contingent self-worth, Academic burnou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cience high school, Affirmative action

1차 원고접수: 2023년 11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23년 12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23년 12월 28일